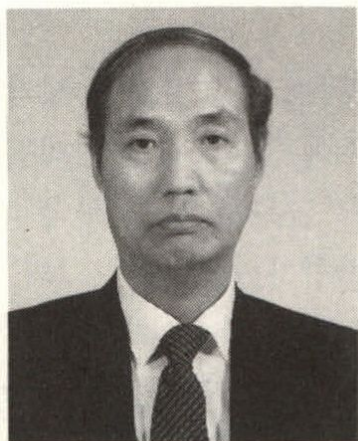


“영광된 미래를 내다보며”



중 교장 조 창 호

교지 「仁聖」 제19호 탄생을 축하하며, 인성인의 소박한 꿈과 소망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축하하여 마지 않는 것은 백합화 동산, 인성 교정에 심겨진 희망의 새싹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며, 그 새싹과 더불어 자라온 우리들의 뜻을 한 데 모아 우리 인성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마침내 웃음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다시금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황무지 같은 메마른 땅에 눈물로써 뿌려진 씨앗들이 41개 성상의 모진 풍상을 이겨내면서 줄기차게 자라 결실되어 가는 것을 보는 벅찬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무 변화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새싹들을 위해 교단을 지키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 사랑이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새싹들은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되어서 밝은 사회 건설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인성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제일교회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정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저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취감의 환희에 젖거나 영예로움을 자랑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멍니다.

사랑하는 인성인 여러분! 역사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창조적 산고(産苦)의 결과이듯 오늘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자랑스러운 내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래를 많이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꼭 밝은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과 밝은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존중되고 생명이 중시되는, 사랑이 충만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러한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도록 이끌어가는 역사적 소명에 충실한 인성의 딸들이야말로 영광된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있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인성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겁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영광된 내일을 내다보며 용기있게 도전함으로써 다같이 승리자가 됩시다. 성경 말씀에 "거룩한 씨가 이땅의 그루터기니라"고 하였듯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그루터기의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교지 '仁聖'을 펴기 위하여 애쓰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전하며 인성 가족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